

情報사회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인의 位相*

金 孝 貞**

目 次

- | | |
|------------------|----------------|
| 1. 緒 言 | 4. 어린이도서관인의 위상 |
| 2. 정보사회의 교육의 방향 | 5. 結 言 |
| 3. 어린이교육과 어린이도서관 | |

1. 서 언

어린이는 작고 힘은 없으나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인류의 미래이다. 현대사회 국가들은 첨단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정신문화 보다 물질문명을 앞세워 서로 다투고 달리며 스스로의 자가당착에 빠져 들고있다.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읽고 쓰는 능력, 기술적 훈련, 국가에 의한 위임받은 근로자를 목표로 성장할 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각은 비판할수 없고¹⁾ technology의 기본기술조차 생각할 겨를없이 기술에 매달려 위험한 생애를 난처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사회의 主流와 떨어져 서먹서먹 해하며 오로지 준문맹이나 기능적 문맹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21세기 정보사회에 맞추어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한 우리나라 어린이 교육을 전망하고 어린이도서관의 기능과 어린이도서관인의 역할을 규명하여 21세

* 本論文은 中央大學校 中央文化研究院 1993년도 研究費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中央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

1) Turning Points, *Prepai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June, 1989.

기의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어린이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려 한다.

2. 정보사회와 교육의 방향

21세기 미래사회를 예견하고 대비, 개발하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일찌기 Toffler, E.는 인간의 권력이 可視적, 物理力인 財貨에서 非可視적 지식과 정보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모습을 언급하였고, Naisabitt, J.도 문화중심의 視覺에서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고발하였었다.²⁾ 계속되는 미래학 연구에 의하면, 인류의 미래는 앞에서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예측의 대상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택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³⁾ 미래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다가 오게되는 물리적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의지와 가치를 부여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되는 선택의 대상인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부단한 관심과 인식을 전제로한 開發하는 자세, 讀書하는 자세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정보사회에서 단편적인 지식은 인간 교양과 人性에는 별르 관계없고, 博識하기만한 사람은 쓸모없어 오히려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 인간은 사고력, 조직력, 창의력, 상상력, 호기심 등의 고등 정신력 (high order intellectual thinking skill)⁴⁾ 을, 수렴적 사고가 아니고 없는 답을 찾다가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발전적 思考로 반드시 요구한다. 미래 세계는 모든 측면에서 인간두뇌가 가장 중요한 投資 대상이고 사람다운 사람으로의 接近이 가장 큰 밑천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 우리나라교육은 근대사회화 형성과정에서 윤리 도덕 규범이 체계화 되어있는 家庭과 사회교육을 바탕으로 1970년대 양적성장을 이루고, 1980년대 질적 발전을 전제하였고, 1990년대 선진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⁵⁾ 그러나 산업화, 경

2) • Toffler, A. 이규행 역,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1. p.617.

• Naisabitt, J. *Megatrend*. N.Y. Warner, 1982.

3) 정범모. "미래의 선택". 서울, 나남, 1991.

4) Mancall, J. C. jt.auth. Educating Students to Think. *SLMQ*. 15(1) Fall, 1987.

5) 정범모. "교육난국의 해부". 서울, 나남, 1991.

체화의 성장 결과는 價値의 전환 속에서 건전한 교육 문화가 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온통 무질서와 혼돈이 난무하는 불건전 문화를 일부 이루어내고 있다. 자본의 힘이 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 기능적 가치관에 의한 과학 기술과 물질 만능, 경제 우선, 스포츠 선두를 내세워 상품(결과) 생산 및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노동자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 등이 附加되는 사회로 전락하고, 근검위주의 유교문화에서 소비위주의 資本주의 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결국 교육현장에서 本末의 顛倒, 權威의 상실과 動搖, 교육과정의 부적합에 의한 사회현상의 생명경시, 거품경제와 기업윤리 不在, 국민적 차원에서 일상 規範 輕視 등의 총체적 난국⁶⁾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정보사회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간성의 쇄신, 지배층의 자기革新, 국민적 반성 등이 일어나서 약탈이 아닌 화해적인 자연관으로 통합적, 유기적 그리고 다원화로의 價値轉換을 전망하게 한다.

정보사회는 지식 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그 과정 자체는 가속화되고 있다. 지식 정보의 저장 재생 및 활용은 다원화, 다양화, 고속화로 전산화되고 지구화, 세계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의 생존과 발전은 이 지식 정보 기술을 창출 처리 활용하는 능력에 의존하게 되고 이 능력은 생각 판단 조직 종합 상상 창조로 표현되는 지적 능력 곧 고등 정신력에 좌우된다. 수렴적 사고인 단순한 지적 작용은 전산화된 컴퓨터가 맡고 발산적 사고로 類推하는 종합(조직) 상상 창조의 작용은 사람다운 精神力으로 인간만이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인간의식은 보다 높은 智力, 보다 예민한 感受性, 보다 투철한 倫理意識, 보다 세계화 의식, 시련을 이기는 毅然함을 지니고 기계같은 인간보다는 사람다운 인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하여 1) 끊임없는 자기 逃戰에 의하여 자신의 潛在力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신과 싸우는 사람, 2) 자신의 限界를 인정하고 이를 收容하여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터 행복을 얻을 줄 아는 사람, 3) 열린 눈과 머리와 가슴으로 폭넓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느낄 줄 아는 사람을 정보사회는 요청한다

이 '사람다움'이란 全人的 人間(as a whole person)으로 현재의 출세지향에서 多價値指向으로, 소비위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검위주의 실용위주 자본사회로, 非凡이 아닌 平凡으로, 수단주위 사고에서 內在가치추구의 사고로, 권위와 집단

6) 김종철. 교육반세기, "교육난국의 해부". 서울, 나남, 1991. p.359-361

위주에서 자유와 개성의 신장 위주로, 좁고 짧은 지역주위 視野에서 넓고 긴 세계화 視野로, 박식위주에서 슬기로운 智力 등을 갖춘 調和있는 사람이 그 표적이 될 것이다.

3. 어린이교육과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는 긍정적인 공격성(충격)을 갖고 순수한 가능성을 보다 쉽게 발현한다. '인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세계의 미래는 어린이에게서'라는 논거가 여기에 있다. 어린이에 대한 어른의 특권은 어른의 눈높이가 아닌 어린이 눈높이에서 어린이의 꿈과 潛在力을 개발하는 기회를 어린이에게 준비하여 주는 권리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弘益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홍익인간의 이념은 人本을 바탕으로 민족 停滯成, 도덕성, 진취성을 기르는 전인교육,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데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개혁심의회와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제시한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정책에 교육내용개선방향을 종합하여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⁷⁾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지향하여 급속하게 변환하는 새로운 시대와 사회의 到來로 불안과 기대가 교차되는 전환기에의 對處로서 국가의지의 표출이다.

21세기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균형있게 발전된 고도산업정보사회, 자율화된 문화 및 복지사회, 국제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개방된 세계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첨단산업, 정보산업 등 고급두뇌 및 선진 기술에 의존하는 산업고도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이어 정보기술 霸權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증대되어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삶의 質도 높아지고 모든 면에 개성화 다양화 다원화는 촉진되고 이어 각종 취미활동과 평생 교육체제가 확충될 것이다.

7) '제6차 교육과정개정' 서울, 교육부, 1992, 6,30-10,30.

8) op. cit. p.6-9.

이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린이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어린이 육성으로 그 방향을 개정하고 있다.⁸⁾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개인이나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인간에 요청되는 특성은 건강한 신체와 더불어 강한 의지력을 구비하고 아울러 건전한 생활태도속에 풍부한 情緒를 지닌 調和로운 心身을 의미한다. 인내심, 건강한 생활습관, 심미, 정서, 취미, 오락, 약물남용 예방, 안전, 위생 등이 덕목이다.

자주적인 사람은 주체적 自我意識을 지니고 개성을 추구하면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의식하는 사람이다. 주체적 자아의식은 自矜心을 가지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인식하고 타인의 의사는 물론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존중하게 된다. 개성과 다양성 추구는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適性에 맞는 인간특성과 진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와 능력이다. 자율성은 외부로부터의 지시와 간섭을 排除하고 독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가 확립되어야한다. 이 덕목은 책임감, 판단력, 독립심, 시민의식, 애국심, 평화, 통일이다.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창조해내는 사고력과 그것을 실천에 옮겨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 내는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다. 창의적 사고력은 기본적인 학습 능력과 지적 능력 독창성 융통성 등을 바탕으로한다.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은 갖추고 새로운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과 고등한 정신력이 요구되며 비범한 독창성 및 사고과정에서 柔軟性이 요구된다.

도덕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한일을 실천하하는 사람이다. 선을 추구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 할수록, 끊임없는 자기생활속에서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制御하고 포기하는 힘이 강할뿐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신의와 정직과 성실을 堅持하며 살아간다. 公私의 갈등을 이를 경우 공익을 위하여 私益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인류共榮을 실현할 수있는 사람이다. 이 덕목은 정직 공정성 생명존중 근검절약 준법 질서 공동체의식 寬容性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과과정구성 방침은 도덕성과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개성 능력 진로를 고려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교육의 質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역대 교과과정 보다는 시·도 학교의 자율재

량권을 확대하는 決定의 분권화, 다양한 履修과정과 필수를 축소하고 선택을 확대하는 구조의 다양화, 학습량과 수준 및 교과목체계의 개선으로 내용의 적정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는 운영의 효율화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찾고 보지 않으면 안되는 교육과정,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에서 편성운영하는 지침으로 각 학교는 그 운영 계획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슬기롭고 지력을 갖춘 조화있는 사람을 기르도록 한 획기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 변화를 수용하는 어린이교육 체제와 현장은 어린이중심의 어린이종합교육프로그램인 어린이도서관을 핵심체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성장과 발달에 관계되는 모든 형태의 매체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배포하고 어린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며 만들어 경험하는 인간커뮤니케이션과정을 통하여 생각과 정보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끌어 내고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 언제나 참여하므로써 사람다운(인간적인)환경과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원에서 어린이 개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형성하도록 이끌어가는 어린이종합교육프로그램이다.

IFLA는 어린이도서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⁹⁾

- 1) 어린이에게 문자 그림 소리의 형태로 표현되는 문화 제공
- 2) 어린이 자신의 문화를 창조하게 자연발생적인 행동의 유도
- 3) 어린이의 기본요구를 만족시키는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受動, 能動적 문화의 제공
- 4) 어린이에게 실제적이고 자발적 성인이될 수있는 문화적이고 교육적인 자극의 제공
- 5) 인류역사에 기초한 문화유산에서 자기이익을 얻어내는 기회 제공
- 6) 어린이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게 격려하는 자료의 제공
- 7) 미래 어린이 세대에서 사용할 자료의 보존
- 8) 어린이문화선호와 여가시간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 참여
- 9) 어린이도서관봉사는 적절한 상황이 설정되고 국가의 전체적 도서관제도의 부분으로 수용

Rollck, B. T.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이로써

9) IFLA Professional Reports, no.25. *Guidelines for Children's Services*, ed. by A.M. Fasick, Hague, IFLA. 1991. p.5-7.

10) Rollck, B. T. *Public Library Services for Children*. Hamden, Library Professional Publication, 1988. p.16.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게 개발해주는 목표를 갖는다¹⁰⁾고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의 문학적 취미를 개발하고 생애를 통한 독서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정보활용의 습관을 익히고, 나아가 평생교육을 격려한다.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과거 미래의 저자와 사상가의 상상적인 전망과 정보의 저장源, 어린이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창조하는데¹¹⁾ 활용되는 환경源으로 서로 만나는 장소, know-how와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 독서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곳으로 어린이 문화활동이나 창조적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곳이다.¹²⁾ 어린이가 자라고 있는 자연과 사회, 과학과 문학 그리고 민족과 세계에 접근하도록 봉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가 미래를 전망하며 어린이다운 어린이로 성장하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¹³⁾할 수 있다.

- 1) 보람있는 미래와 그 책임의 이해 및 미래 공헌에 대한 이해.
- 2) 도덕 정신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自己價値.
- 3) 정보사회에서 정보 소재과학과 그 활용능력이 자기실현의 관건이라는 의식.
- 4) 현재 활용되는 기술과 변화되는 기술 세계에서 적용할 준비.
- 5) 생각(idea)과 정보에의 마케팅에서 누구나 평등한 접근.
- 6) 문제해결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 7) 듣고 쓰고 말하고 읽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트의 능력.
- 8) 多文化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와 威嚴을 존중하는 준비.
- 9) 평생 학습자가 되려는 능력과 욕망.
- 10) 더 좋은 사회를 꿈꾸는 창조적 능력.

여기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첫째 어린이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가치관, 태도, 습관의 기본을 바르고 슬기롭고 즐겁게 형성하도록 돕는 基礎생활. 둘째 어린이를 존중하고 개성화를 인정하며 자신의 흥미와 관심도에 따라 성장하게 돕는 어린이 중심. 셋째 어린이의 건강 사회성 정서 및 창의적 표현, 언어, 사고능력 등 성장발달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발달하도록 돕는 全人교육. 넷째 어린이와 환경 특히 정보문화(책과 도서관 및 정보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에서 실제 경험

11) Ibid p.13.

12) 김효정. 어린이도서관봉사활동. "중대인문과학논문집", 35집 서울, 중앙대학교, 1992. p.283.

13) Mathews, V.H. jt.auth. Kids Need Libraries. SLMQ 18(3) Springs, 1990. p.169-170.

다 자발적인 놀이(경험)을 중심으로 자라도록 돕는 통합(open)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한다. 어린이의 건전한 심신성과 정신발달, 사회성발달, 표현력개발, 언어력 발달, 탐구력 개발을 통합하는 어린이종합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은

- 1) 어린이 내부의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을 개발하고 신장시키는 天然한 교육 기능
- 2) 교육내용 자체보다 그 사실에의 접근 방법을 익혀 지적 秀越과 정서적 수월을 조화시키는 전인교육기능
- 3) 밝고 슬기롭게 안내받아 양육되고 스스로 형성하는 배움과 경험의 실험실로 교육생태계 회복기능
- 4) 민첩한 개인 우선 보다 이웃과 협력하는 그리고 외로운 非凡의 精練보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平凡의 洗鍊된 인간관계 형성기능을 含蓄하고 있음이¹⁴⁾ 분명하다.

그리하여 어린이도서관은 첫째 어린이가 생각과 정보를 얻는 분석적 태도의 개발, 둘째 각기 다른 견해에서 비판적으로 지식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 세째 평생 긍정적 관계에서 정보를 취급하고 표현해내는 수단등을 흥미롭게 개발하여 자아 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어서 생각하는 고등정신력을 啓發하고 자연과 인간을 調和롭게 조절하는 인간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창조적 적응의 천연한 교육, 조화로운 쉼수교육, 더불어 이웃하는 인간관계 형성을 가능하게¹⁵⁾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관은 새로운 문화태동의 잠재력을 함축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종합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4. 어린이도서관인의 위상

21세기 어린이는 분별력있는 소비자, 판단력있는 유권자, 유능한 지도자로 성숙해야하는 영원한 인류의 미래이다.¹⁶⁾ 조화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하는 정보사회

14) 김효정. 한국어린이도서관의 모형. "중앙대학교 인문과학논문집", 32집. 1989. p.69.

15) 김효정. 教育改革을 위한 SLMP의 適用可能性. "중앙대학교 인문과학논문집", 27집. 1984. p.45~64.

16) Mathews, V.H. op. cit. p.168.

어린이의 挑戰은 생산력 증진(창조력) 읽고 쓰는 능력 향상(문학성) 민주주의 강화에 있다. 이 도전들은 다시 어린이에게

- 1) 지구촌 세계화 시장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경쟁력
- 2) 신속한 사회와 기술변화에 직면하는 힘으로 읽고 쓰는 능력
- 3) 환경공해와 오염에서 자연생태계 보존능력
- 4)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으로 참여하는 人權恢復力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들은 건전한 자기존중, 안정된 문학적 습관, 신뢰의 학습을 바탕으로 도서관을 통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기술로 충족시키고 개척할 수 있다.¹⁷⁾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도서관의 목표는 어린이 교육목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봉사는 어린이를 즐겁게 하고 肯定的 方向에서 어린이능력과 정력을 이끌어내는, 한 인간형성의 기초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소장하고 있는 자료원의 내용보다 더 확대된 실제봉사를 전개할 수 있다.¹⁸⁾ 어린이에게 긍정적인 도서관경험을 준비하게 하고 정보활용을 격려하는 어린이종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의 기초생활을 바탕으로 어린이중심, 전인적 발달, 그리고 통합적 발달을 기본으로 하는 다음의 4영역¹⁹⁾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다.

1) 읽고 쓰는 능력(literacy) 향상을 위한 영역

언어는 어린이성장발달에서 인간 意思를 疏通하는 도구이다. 고로 어린이의 지각 구조를 만들게 돕고 어린이 생활과 교육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데 상호작용하는 필수 媒體이다. 언어발달은 소리언어와 글자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적인 언어능력의 신장을 가져 온다. 언어문화 活用者는 일상생활을 보다 즐겁게 지내게 된다. 어린이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기초언어능력을 습득하여 국민학교 3학년까지 그 발달의 절정을 이루고 이어서 정보를 이해하는 학습도구인 정보전달매체로 개발하게 된다. 여기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어린이 기초생활전개를 확보하고 나아가 문학성을 향상시키는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17) 김효정, 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 op. cit. p.281.

18) Rollick, B. T. op. cit. p.25.

19) Cutlip, G. W. *Learning and Information*. Englewood. Unlimited, 1988. p.28-29.

2) 人性에 관한 영역

어린이가 언어능력과 함께 요구하는 인성(personal)기본기술은 학습의 準요소이다. 인성은 각기 다른 배경 건강 태도 동기 기대치 등을 갖는 어린이생활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로로서 어린이와 교사가 생산적인 이용을 하게 한다. 어린이가 수용하려는, 어린이에게 수용되는 태도, 상호인간관계(참여 반응 알선 개성화)의 기본기술, 넓은 흥미, 자기조정, 인격적 목표, 이해력있는 협상과 처티, 그룹과의 관계 등은 '어린이다운' 어린이성공의 힘있는 영양소인²⁰⁾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은 이러한 인성형성을 중심으로 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認知에 관한 영역

어린이 발달에서 인지과정과 고등정신력은 독특한 요소이다.²¹⁾ 인지과정은 정보처리와 지식 창출의 정신적 작용을 한다. 어린이는 새로운 상황への 전환을 촉매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직접(direct)교육 받아 실험하게 한다. 인지과정은 기억, 집중력, 지각, 비교, 분석, 종합, 평가의 각 단계를 거쳐야하고 더불어 이어지는 고등정신력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의사결정, 창조적 사고를 수행해야만 계발된다. 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어린이다운 인지와 상상 및 창의로 창조적 적응은 인지와 더불어 고등정신력의 계발을 이루고 나아가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前提할 수 있다.

4) 정보기본기술(information skill)에 관한 영역

앞 3 영역의 기초 및 방법으로 정보기본기술은 반드시 동반되어야한다. 어린이의 정보기본기술은 첫째 정보의 획득 조직 통합 이용 평가 등 어린이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인 것이다. 곧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러자료에서 정보를 분석 평가하는 기술인 것이다. 둘째 도서관매체기술로 정보처리에 중핵이고 기술적 이해, 도서관이용, 연구조사, 데이터 베이스분담, 매체제작과 발표, 독자적인 도서관이용을 통한 다양한 정보의 소재 파악과 조직 및 평가이다. 세째 원문분석으로 학습

20) Ibid. p.30-31.

21) Turner, P. M. Information Skill and Instructional Consulting a Synergy? *SLMQ*, 20(1)Fall, 1991. p.13-18.

능력에 아주 가깝게 連繫되는 것이고 원문형태에서 많은 정보를 보고 얻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이와 같은 지식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개체 성장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절대필수이다. 수많은 정보형태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단순한 도구나 기계의 기술 이외에, 심리적 기술까지 사회에서 성공적 커뮤니케이션,²²⁾ 다시 말하여 학습의 중심체가 되는 것이다.

어린이의 언어능력은 어린이 도서관을 통하여 정보기본기술인 도서관매체기술과 원문정보의 채택을 좌우한다. 또 도서관매체기술은 원문정보채택의 효과와 효율을 확보하고, 원문분석은 기록정보를 읽고 해설하여 독서전략, 나아가 커뮤니케이션전략을 내포하는 구조분석, 원문구조, 내용구조, 공부하는 기술을 인지하고 적용하며 개발하는 힘을 지니게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관은 생각하는 힘과 고등 정신력을 개발하고 자연과 인간을 조화있게 조절하는 인간성함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실되었던 인간성 회복과 새로운 문화태동의 잠재력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는 동적 자원인 도서관인과 예산과 정적자원인 자료와 시설의 두 면이 있다. 아무리 우수한 정적 자원도 동적 자원의 매개없이 는 활성화를 期할 수 없고 필수불가의 도서관인은 아무리 미비한 두 영역 자원이라도 활력을 조성하는 인간자원이다. 성실하고 열성적인 인간자원의 확보는 능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서관 활동을 확신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인은 문제를 이해하고 확인하며 그 해결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방향에서 창안하는 지식 정보의 촉매제이다. 따라서 수동적인 수집과 저장 및 유포보다 능동적인 창조적 지성의 회복과 축적 그리고 그 발현의 역할이 보다 기대되는 인간자원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 到來에 따라 도서관인은 단순한 정보자료의 제공 보다 진실과 사실을 다양하게 수집 정리 분석 조정매개하게 하여 전산화 정보체계에서 그 접근과 활용, 새로운 지식 정보 탐구, 생각하는 창조적 적응력 배양에 적극참여하는 역할의 다양화를 創出하고 있다. 이는 인간능력개발의 根幹이고 정보사회에서 전망되는 인간위기극복의 수단이며²³⁾ 정보사회 도서관인의 새로운 역할로 재조명되고 있다.

22) Edmode, L. From Superstition to Science. *Library Trends*. 35(3) Chicago, 1987. p.516.

23) Wanugana, E. *Children's Story Telling and Reading... Library Work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Munchen, IFLA. 1984. p.185.

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은 일찌기 읽을 거리 선택과 제공을 주요 봉사로 수행하였고 정보사회의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어린이의 흥미와 요구에 따라 지식정보를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원, 교육환경원인 어린이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변모되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 성장발달을 이해하는 知人力과 어린이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분석하는 知書力을 필수로 어린이와 정보원을 調整 媒介하는 인간 자원인 것이다. 어린이도서관인의 專門職 촉매에 의하여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체계화된 정보자원을 활용하고 수정, 개선, 변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감수성(sensibility) 환상(fantasy) 상상(imagination) 그리고 창조적 적응력²⁴⁾을 개발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인은 근본적으로 어린이를 좋아하는 천품을 갖고 어린이와 같이 생동감있게 어린이 변화에 대응하여 어린이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정력적이어야 한다.²⁵⁾ 자격은 4년제 대학에서 MA 학위 또는 어린이봉사에의 특별한 과정, 그리고 2년의 어린이도서관봉사 經驗을 구비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를 가체로 인지하고 어린이자료의 섭렵으로 어린이와 자료를 선정, 분석, 안내, 매개, 조정하므로써 어린이의 배우는 환경을 자극하고, 개조하여 어린이답게 성장 발달 하게 이끌어가는 촉매자요 윤회유료²⁶⁾ 봉사한다. 어린이도서관 봉사 현장에 관한 넓은 지식이 어린이도서관인에게는 필수이고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어느 다른 도서관직원과도 함께 다른 사람을 지도할 능력이 기본 기술이다. 더불어 자아개발, 술선수범과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효과있게 말하고 쓰는 능력도 또한 필수이다.

어린이도서관인의 임무는 첫째 도서관장의 지도 아래 봉사를 위한 계획 조직 장서 유지관리 둘째 변화있는 어린이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셋째 어린이와 그 부모에게 정보봉사와 독자적 助言봉사를 준비하는 것이다.²⁷⁾ 이 임무에 따른 책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과 자료원 이용에서 어린이를 도와준다.
- 2) 어린이 자료의 적절한 선정을 위하여 부모와 다른 성인을 도와준다.

24) Wilson, P. *Children's Service in Time of Change*. Lib. Lit., 1979. Bowker. P392.

25) 김효정. *한국어린이도서관* op. cit. p.87.

26) Conner, J.G. *Childrens Library Services Handbook*. Phoenic press, 1990. p. .

27) 김효정. *어린이도서관 봉사활동*. op. cit. p.300.

- 3) 어린이부서에서 구입하는 책, 정간물, 비인쇄자료의 서평을 읽고 선택한다.
- 4) 定期 조사와 제거로 어린이장서를 유지 관리한다.
- 5)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활동과 프로그램을 계획, 지시하고 시간표를 작성하여 公告한다.
- 6) 일년 예산을 준비한다.
- 7)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의 통계적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 8) 도서관 관장에게 정규 보고서를 준비한다.
- 9) 어린이영역에서 즐겁고 환영하는 환경을 유지 관리한다.
- 10) 필요한 서지적인 교육과 그룹지도를 현장에서 지휘한다.
- 11) 효과적인 도서관운영 달성에 전문적이거나 비전문적인 필수직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서관직원과 한 집단요원으로 협력한다.

정보사회에서 어린이도서관인의 책임과 의무를 밝히며 類推되는 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언어와 문화의 啓發者이다.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의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느껴 커뮤니케이트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어린이시절 언어와 문화의 계발자이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며 언어를 통한 문화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책읽기 글쓰기 이야기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휘력 확대와 언어기술발달의 기초부터 그 향상을 책임질 수 있다. 국민학교 3학년에 그 절정을 이루는 읽고 쓰는 언어능력은 문학성을 향상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어지는 자기교육과 학교교육에서 학습력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선하는 위상인 것이다.

둘째 어린이 人性형성의 相談者이다. 어린이 인성은 어린이학습의 主要素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린이는 즐겁고 재미있고 좋은 것을 따라 행하며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의하여 경험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데로 자기 인성을 형성한다. 자아동기, 자아개념, 긍정적 태도, 참여 반응 솔선 개성화의 인관관계, 흥미, 자기조정, 인격의 목표, 이해력있는 처리와 협상을 성공에 힘있는 요소로 어린이는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도서관인은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민주 의식을 성숙 강화시키고 어린이의 신뢰를 받으며 협의하는 상담자로 활약한다.

세째 어린이 인지과정의 協議者이다. 어린이가 깨달아 아는 인지과정과 높은

정신력은 어린이발달에서 독특한 요소이다. 인지과정이 기억 집중력 지각 비교 참조 분석종합 평가의 각 단계를 거치고 고등 정신력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창조적 사고를 수행한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창조적 적응과 생산성 증진을 지향하도록 각 단계마다 촉매하는 협의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네째 어린이 정보기본기술의 촉매자이다. 고도 정보사회에서 앞의 3 영역은 그 개발과 향상에 기초로, 또는 방편으로 정보기본기술을 필수로 요구한다. 이 정보기본기술은 이어 도서관매체기술, 원문분석기술로 단계적인 향상을 거쳐 어린이답게 성장하고 발달하게 하는 평생의 도구요, 수단이다. 이 정보활용을 터득한 어린이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개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 정보기본기술의 촉매자로 적극 활동 할 수 있다.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도서관 내외에 체계있는 장서를 개발하여 유용한 자료를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설계자이고 관리자이다. 동시에 정보의 부가가치인 신속, 대량, 효율, 정책을 기하는 정보전문가의 기초를 다져야한다. 한편 정보기본기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인지과정으로 창조적 적응을 이끌도록 촉매하는 교사의 자질을 연마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과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교수와 학습에서, 어린이문화태동에서 신뢰받는 협의자의 자세를 구비해야한다.

5. 결 언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어린이교육의 목표는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어린이형성에 있다. 과거와 다르게 '찾아가는' '만들어가는' '편성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슬기롭고 지력을 갖춘 조화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 획기적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현장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전제로 하게한다. 어린이도서관은 사람다운 環境源과 풍부하고 다양한 資料源에서 어

린이 개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자아실현을 형성하도록 이끌어가는 어린이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관인은 정보사회에서 어린이가 도전받고 있는 생산적인 경쟁력, 읽고 쓰는 능력, 자연생태계환경 보존능력, 민주화과정에서 인권회복력 등의 명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도서관인은 어린이언어와 문화의 계발자, 人性형성의 상담자, 認知과정의 협의자, 정보기본기술의 촉매자로서 새로운 문화태동의 잠재력을 함축하고있는 미래지향의 位相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정범모. “교육난국의 해부” 서울, 나남, 1991.
- 교육부. “제6차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1992.
- Toffler, A. “권력이동”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1, p. 617.
- 김효정. 한국어린이도서관의 모형. “중대인문과학논문집” 32집 1989.
- 김효정. 어린이도서관봉사활동. “중대인문과학논문집” 35집 1992.
- Cutlup, G. W. *Learning and Information*, Englewood, Unlimited, 1988.
- Conner, J. G. *Children's Library Services Handbook*. Phoenix press, 1990.
- IFLA Professional Reports, no.25 *Guidlines for Children's Services*, ed. by
A. M. Fasick, Hange, IFLA. 1991.
- Maathew, V. H. jt. auth. Kids Need Libraries, *SLMQ* 18(3) Springs, 1990.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Children's Librarian in the 21st Century

Hyo-Jeong Kim*

This article presents the role of children's librarian in the age of information. Preparing the 21st century, there should have been to identify the humanities of health, independent, creative, and moral fact with educating children in future Korea.

Children's library should service all the children to improve the information skill and technology, to creat a whole person with high order intellectual thinking skill for the consumer, the voter and the leader of the next generation.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the children's librarian should play as a mediator of literacy and culture of children, a creating counselor of personality, a negotiator of recognating all knowledge, and a leader of the information skill or communication skill in the children educatiom at the 21st century.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ungang University.